2027학년도 CERMONT 첨예 모의고사 2회

제 4 교시

정답 및 해설(생활과 윤리)

빠른 정답

생활과 윤리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④	④	③	①	②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④	③	①	②	③	⑤	①	⑤	②

예상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48	45	42	38	32	26	20	15

총평

이번 회차는 제시문을 짧게 줄이고 사상가의 고유 개념어를 넣었다. 사상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변별은 선지에서 일어나며, 제시문의 문장을 되짚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선지가 곳곳에 있다.

전체 난도는 최근 평가원 기출과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수준으로 예상한다. 1, 3, 8, 14, 16번은 사상가와 글의 주장을 잡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변별은 4, 7, 11, 13, 19, 20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7번과 19번은 내용이 맞아도 칸이 틀린 진술을 가려야 한다. 11번은 칸트와 벤담의 공통점까지 판단해야 한다. 13번은 홉스의 계약 구조와 루소의 주권론을 구별해야 한다. 20번은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사후 보상이나 이익 비교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등급컷은 실제 응시 자료가 없는 예상값이다.

생활과 윤리

1번 정답 ②

문제 원본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❶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여러 사회의 도덕 풍습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해 왔는지를 조사하여 그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❷ 데 힘써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선'이나 '의무' 같은 도덕적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❸를 따지고, 도덕 판단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① (가) : 옳고 그름을 판정할 보편적 원리를 세우는 것이다.
② (가) : 도덕 현상의 실태를 가치 평가 없이 서술❹하는 것이다.
③ (나) : 실천적 문제의 구체적 해법을 찾는 것이다.
④ (나) : 도덕 풍습의 변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 바람직한 삶의 규범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사고 메모

❶ 기술, 메타, 이론, 실천 윤리학 중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 선지의 과제를 판단할 수 있다.

❷ 규범을 세우지 않고 사실만 서술한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①과 갈리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다.

❸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언어와 정당화를 분석한다. ③의 실천 윤리학과 혼동하지 않는다.

❹ 기술 윤리학의 가치 중립을 짚은 표현이다. ④는 (가)의 과제를 (나)에 붙여 주체를 바꾼 선지이다.

정답 선지

② (가) : 도덕 현상의 실태를 가치 평가 없이 서술하는 것이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가)는 도덕 풍습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밝히려 하므로 기술 윤리학이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서술한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보편적 원리를 세우는 것은 이론 윤리학의 과제이다.
③ 구체적 해법을 찾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과제이다.
④ 풍습의 변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가)의 과제이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규범을 직접 세우지 않는다.

키포인트

-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서술하고,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와 정당화를 분석한다.
- 두 분야 모두 규범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과 다르다.

홀수형

2번 정답 ④

문제 원본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의 희망을 주므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체외 수정 뒤 남은 잔여 배아는 어차피 폐기될 운명이므로, 이를 연구에 쓴다고 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 을 : 난치병 치료가 소중한 목표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배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닌 생명입니다. 폐기될 운명이라 해서 그 지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갑 : 아닙니다. 배아는 감각도 의식도 없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잠재성을 지녔다는 것만으로❷ 이미 태어난 인간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 을 : 잠재성은 인간 생명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근거이므로, 배아는 이미 태어난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❸. 그러므로 배아를 연구 재료로 쓰는 것은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일입니다.

① 난치병 치료는 추구할 만한 의료적 목표인가?
② 잔여 배아는 결국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는가?
③ 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가?
④ 잠재성을 지닌 배아는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❹를 지니는가?
⑤ 배아는 감각과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사고 메모

❶ 쟁점은 두 사람의 답이 갈리는 물음이다. 둘 다 인정하거나 한쪽만 말한 내용은 지운다.

❷ 갑도 잠재성 자체는 인정한다. 그래서 ③은 쟁점이 아니고, 다투는 것은 잠재성이 주는 지위이다.

❸ 갑의 앞선 발언과 정면으로 갈린다. 잠재성의 존재가 아니라 그 도덕적 의미를 두고 다툰다.

❹ 갑은 아니요, 을은 예라고 답하는 물음이다. 양쪽의 답을 모두 넣어 보아야 쟁점으로 확정된다.

정답 선지

④ 잠재성을 지닌 배아는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정답 근거

정답이다. 갑은 잠재성만으로 인간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하고, 을은 배아가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한다. 두 사람의 답이 갈리는 물음이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을도 소중한 목표라고 동의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② 을도 폐기될 운명이라는 전제를 다투지 않는다.
③ 갑도 배아가 잠재성을 지녔음을 인정한다.
⑤ 갑만 언급하고 을은 다투지 않으므로 쟁점이 아니다.

키포인트

- 쟁점은 양측이 서로 다른 답을 내는 물음이며, 한쪽만 말한 내용은 쟁점이 아니다.
- 배아 줄기세포 연구 논쟁의 핵심은 사실로서의 잠재성이 아니라 배아의 도덕적 지위이다.

3번 정답 ①

문제 원본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강연자 : 사랑은 감정에 몸을 맡기는 일이 아니라 훈련으로 익혀 가는 기술입니다. 사랑에는 보호, 책임, 존경, 이해❷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생명과 성장을 돌보고, 그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며, 그를 있는 그대로 대할 수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대를 깊이 아는 일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① 존경은 상대를 내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❹ 태도이다.
② 사랑은 상대에게서 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감정이다.
③ 책임은 상대에게 희생을 요구할 권리에서 나온다.
④ 상대에 대한 보호는 그를 소유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을 잃고 상대와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다.

사고 메모

❶ 네 요소의 뜻을 하나씩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요소의 이름만 맞는 선지를 조심한다.

❷ 프롬의 네 요소이다. 선지는 각 요소를 소유나 희생 요구로 비틀어 묻는다.

❸ 존경의 뜻이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므로 소유와 반대된다.

❹ 있는 그대로 대하는 태도를 뒤집어 표현했다. 표현이 달라도 뜻이 같으면 맞는 선지이다.

정답 선지

① 존경은 상대를 내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태도이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프롬에게 존경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를 내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 태도이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② 프롬에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능동적 활동이다.
③ 책임은 상대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는 자발적 행위이다.
④ 보호는 상대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관심이지 소유욕이 아니다.
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개성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키포인트

- 프롬의 사랑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를 갖춘 능동적 활동이다.
- 자신을 잃는 융합과 개성을 지키는 성숙한 사랑을 구별한다.

홀수형

4번 정답 ③

문제 원본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 선한 것은 인위[僞]이다❷.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니, 이를 따르면 다툼이 생기고 사양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의 교화와 예의(禮義)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 을 : 바른 것 중의 바른 것은 타고난 본성의 참모습[性命之情]❸을 잃지 않는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이어 주면 근심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 주면 슬퍼한다. 그러므로 본성이 긴 것은 자를 일이 아니고 본성이 짧은 것은 이을 일이 아니다. 아마도 인의(仁義)는 사람의 참모습이 아닐 것이다❹.

① 갑 : 성인과 일반 사람은 타고난 본성부터 서로 다르다.
② 갑 : 예의는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확충한 결과이다.
③ 갑 : 성인은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고❺ 예의를 만든다.
④ 을 :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하려면 인의를 배워 익혀야 한다.
⑤ 갑과 을 :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세상은 혼란해진다.

사고 메모

❶ 둘 다 본성을 말하지만 인위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이다. 이 축으로 선지를 나눈다.

❷ 선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다. ②처럼 선한 본성을 전제하면 맹자가 된다.

❸ 장자는 본성을 해치지 않는 것을 바름으로 본다. 그래서 ④처럼 인의를 배우라고 하지 않는다.

❹ 유가의 인의도 인위로 본다. 순자가 긍정한 인위를 장자는 비판한다.

❺ 화성기위이다. ①은 성악을 "성인만 다르다"로 오해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정답 선지

③ 갑 : 성인은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고 예의를 만든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교화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성인이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고 예의를 만들었다는 것이 화성기위이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순자는 성인과 일반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같다고 보았다.
②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은 맹자의 입장이다.
④ 장자는 인의를 사람의 참모습으로 보지 않는다.
⑤ 순자의 입장이다. 장자는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두라고 한다.

키포인트

- 순자는 악한 본성을 인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장자는 본성에 인위를 더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순자의 화성기위와 맹자의 확충을 구별한다. 순자에게 성인과 일반 사람의 본성은 같다.

5번 정답 ④

문제 원본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❶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사회 집단의 행위를 개인의 도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앞세울 줄 알지만, 집단은 자기 이익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국심만 보아도 개인의 이타심이 모여 국가의 이기주의가 된다❷. 그래서 개인의 최고 이상은 이타심이지만, 사회의 최고 이상은 정의❸이다.

① 집단의 도덕성은 구성원 개인의 도덕성에 비례한다.
② 개인의 이타심이 커질수록 집단의 이기심은 약해진다.
③ 사회 갈등은 교육과 이성의 발달로 해소될 수 있다.
④ 집단 간 정의는 도덕적 설득만으로는❹ 실현될 수 없다.
⑤ 사회 윤리에는 개인의 도덕적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

사고 메모

❶ 개인과 집단의 도덕을 구분하는 글이다. 선지가 둘을 이어 붙이면 먼저 의심한다.

❷ 이타심이 커져도 집단 이기주의는 줄지 않을 수 있다. ①, ②를 막는 근거이다.

❸ 사회의 이상이 이타심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타심을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뜻은 아니므로 ⑤는 지나치다.

❹ "만으로는"이 핵심이다. 설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답 선지

④ 집단 간 정의는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니부어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개인의 양심이나 설득만으로 극복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집단 간 정의를 위해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집단도 이기적일 수 있다.
② 제시문은 개인의 이타심이 모여 국가의 이기주의가 된다고 한다.
③ 니부어는 이성과 교육만으로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니부어는 강제력과 함께 개인의 도덕적 이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키포인트

- 니부어는 개인 윤리의 이상인 이타심과 사회 윤리의 이상인 정의를 구분한다.
- 집단 이기주의를 견제하려면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하되 개인의 도덕성도 함께 필요하다.

홀수형

6번 정답 ④

문제 원본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❶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 학생들에게
> 행복을 옳음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걱정하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행복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❷이며,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서 사심 없는 관찰자처럼 엄정하게 공평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을 희생할 수 있지만, 희생 그 자체가 선은 아니며❸ 행복의 총량을 늘리지 못하는 희생은 낭비일 뿐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게 하는 궁극적 힘은 양심의 감정, 곧 내적 제재입니다. 남이 내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황금률❹에서 저는 공리의 윤리가 지닌 완전한 정신을 봅니다.

① 옳음을 판단할 때 자신의 행복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행위의 옳음은 행위자의 동기가 선한지에 달려 있다.
③ 자기희생은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한 행위이다.
④ 쾌락은 양만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진다❺.
⑤ 규칙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증진보다 우선해야 한다.

사고 메모

❶ 공리주의자임은 쉽게 보인다. 문제는 벤담과 밀 가운데 누구의 입장까지 묻는지이다.

❷ 자신의 행복도 "모든 사람"에 들어간다. 자신을 빼라는 ①과 다르다.

❸ 희생도 행복의 총량으로 평가한다. 결과와 무관하게 선하다는 ③을 막는다.

❹ 황금률을 공리의 윤리와 연결하는 것은 밀의 표현이다. 제시문에 없는 질적 공리주의를 떠올린다.

❺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다. 밀의 질적 공리주의라는 교과 지식으로 판단한다.

정답 선지

④ 쾌락은 양만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진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밀은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쾌락의 가치를 양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벤담과 갈리는 부분이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밀은 자신의 행복도 타인의 행복과 똑같이 공평하게 계산한다.
② 밀은 행위의 옳음과 행위자의 동기를 구분한다.
③ 제시문은 희생 그 자체가 선은 아니라고 한다.
⑤ 밀에게 규칙은 공리에 종속된 이차적 원칙이다.

키포인트

- 밀의 공리주의 기준은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이며, 자신의 행복도 공평하게 계산한다.
- 쾌락을 양으로 환원하는 벤담과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밀을 구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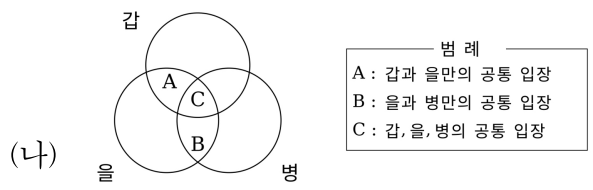
7번 정답 ③

문제 원본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❶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갑 : 이익을 가지려면 쾌고 감수 능력❷이 있어야 한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고통은 어떤 종의 고통이든 도덕적 고려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을 : 인간이 다른 종보다 본래 우월하다는 믿음은 근거 없는 편견이다. 생명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개별 유기체❸는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이 가치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 병 : 대지 윤리❹는 공동체의 경계를 토양, 물, 식물, 동물로 넓힌다. 대지를 우리가 소유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볼 때, 비로소 사랑과 존중으로 대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나)



< 보 기 >

ㄱ. A : 인간이 아닌 존재도❺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ㄴ. A : 도덕적 고려의 일차적 대상은 개별 존재❻이다.
ㄷ. B : 감각 능력이 없는 식물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ㄹ. C : 종이나 생태계 같은 전체도❽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❾
④ ㄴ, ㄹ
⑤ ㄷ, ㄹ

사고 메모

❶ 내용이 맞는지와 칸이 맞는지를 따로 본다. A는 갑, 을만이므로 병에게 맞으면 틀린다.

❷ 싱어의 기준이다. 감각이 없는 존재를 빼므로 B 칸의 식물 진술에서 갈린다.
❸ 테일러의 개체론이다. 대상은 레오폴드와 겹치고, 개체를 보는 관점은 싱어와 겹친다.
❹ 레오폴드의 전체론이다. 개체 중심인 갑, 을과 관점이 다르다.

❺ 내용은 참이지만 세 사람 모두의 입장이다. "갑과 을만"인 A에는 넣을 수 없다.
❻ 개체와 전체의 축이다. 싱어와 테일러는 개체, 레오폴드는 전체이다.
❼ 범위의 축이다.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포함하고, 싱어는 제외한다.
❽ 내용은 병의 입장이지만 갑, 을이 동의하지 않아 C가 될 수 없다.
❾ ㄱ과 ㄹ은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칸이 틀린 진술이다.

정답 선지

③ ㄴ, ㄷ

정답 근거

ㄴ. (O) 싱어와 테일러는 개별 존재를 고려한다. 레오폴드는 공동체 전체를 중시하므로 A의 진술이다.
ㄷ. (O)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를, 레오폴드는 식물까지 고려한다. 싱어는 감각 능력이 없는 식물을 제외하므로 B의 진술이다.
따라서 ㄴ, ㄷ이 옳다.

나머지 선지 근거

ㄱ. (X) 세 사상가 모두 인간이 아닌 존재를 고려하므로 병까지 포함하는 C의 진술이다.
ㄹ. (X) 전체를 직접 고려하는 것은 레오폴드뿐이므로 C의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ㄱ이나 ㄹ을 고른 ①, ②, ④, ⑤는 답이 아니다.

키포인트

- 싱어는 감각 존재, 테일러는 모든 생명 개체,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까지 도덕적 고려의 범위로 본다.
- 고려 범위의 축과 개체론, 전체론의 축을 따로 세워야 그림의 칸을 정확히 채울 수 있다.

홀수형

8번 정답 ①

문제 원본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정치를 맡는다면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을 것이다[正名]❷.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을 : 각자의 소명(召命)은 주님이 세워 주신 초소❸와 같으니, 함부로 떠돌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누구든 소명에 순종한다면,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귀하게❹ 여겨지지 않을 일은 없다.

① 갑 : 지위에 따른 직분❺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② 갑 :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아도 정치에는 지장이 없다.
③ 을 : 직업을 통해 얻는 부는 그 자체로 죄악이다.
④ 을 : 세속의 직업은 수도원의 삶보다 신앙적으로 낮은 가치를 지닌다.
⑤ 갑과 을 : 직업의 가치는 얻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평가된다.

사고 메모

❶ 둘 다 각자의 자리를 강조한다. 자리의 근거가 정치 질서인지 신의 부름인지로 나눈다.

❷ 이름과 실제를 일치시키라는 뜻이다.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②를 막는다.

❸ 직업을 신이 맡긴 자리로 본다. 칼뱅의 소명 사상이다.

❹ 세속의 일도 귀하다는 뜻이다. 수도원의 삶을 더 높게 보는 ④를 막는다.

❺ 정명이 곧 정치의 출발점이다. 직분의 근거가 신앙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는 점도 본다.

정답 선지

① 갑 : 지위에 따른 직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공자는 임금, 신하, 아버지, 아들이 각자의 이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위에 따른 직분을 다하는 것은 정명의 핵심이자 정치의 근본이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② 공자는 이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③ 칼뱅은 소명에 충실하여 얻은 부를 죄악으로 보지 않는다.
④ 칼뱅은 세속의 직업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본다.
⑤ 공자는 직분의 수행을, 칼뱅은 소명에 대한 순종을 중시한다.

키포인트

- 공자의 정명은 각자의 이름에 맞는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
- 칼뱅의 소명 사상은 세속의 직업을 신이 맡긴 일로 보아 그 가치를 높였다.

9번 정답 ②

문제 원본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❶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평등한 자유나 공정한 기회 균등❷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주된 대상이다. 반면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보통 정치 과정에서 다룰 문제이다. 같은 부정의를 겪는 집단이 여럿이면 모두가 불복종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불복종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❸ 이루어져야 한다.

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한다.
② 불복종자는 처벌을 감수하여❹ 법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 준다.
③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일 뿐이다.
④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거부처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지 않는다.
⑤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다른 집단의 사정과 무관하게 판단된다.

사고 메모

❶ 제시문은 대상과 한계만 다룬다. 불복종의 성격은 교과 지식으로 판단해야 한다.

❷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의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 위반은 주된 대상이 아니므로 ①이 막힌다.

❸ 불복종이 정당해도 사회 질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⑤를 막는다.

❹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법 체계를 존중한다는 표현이다. 양심적 거부와 혼동하기 쉬운 ④와 함께 정리한다.

정답 선지

② 불복종자는 처벌을 감수하여 법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 준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위법 행위이며, 불복종자는 처벌을 감수한다. 이를 통해 법 체계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 준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차등의 원칙 문제는 대개 정치 과정에 맡긴다고 한다.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양심적 거부와 달리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
⑤ 제시문은 다른 집단의 사정도 고려하여 한계를 둔다.

키포인트

-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호소하는 공개적, 비폭력적, 양심적, 정치적 위법 행위이다.
- 주된 대상은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의 명백한 위반이며,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는 점이 양심적 거부와 다르다.

홀수형

10번 정답 ⑤

문제 원본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❶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진정한 예술과 거짓 예술을 가르는 확실한 징표는 예술의 전염성❷이다. 전염의 강도는 감정의 독특함, 표현의 명료함, 예술가의 진실함에 달려 있으며, 전염이 강할수록 예술로서는 더 뛰어나다❸. 그러나 이는 내용과 상관없이 예술로서의 우열을 가린 것일 뿐이다. 내용의 좋고 나쁨은❹ 그 시대의 종교적 인식에 비추어 따로 평가해야 하며, 오늘날 그 인식은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자각이다.

① 예술의 가치는 작품의 형식미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예술의 가치는 작품이 주는 쾌락의 크기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예술가의 진실함은 전염의 강도와 무관하다.
④ 도덕적 내용을 담은 작품은 전염성이 없어도 참된 예술이다.
⑤ 전염성이 강하다고 내용까지 좋은 예술인 것은 아니다❺.

사고 메모

❶ 예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인지 둘인지 찾는다.
❷ 감정이 옮겨 가는 힘을 예술의 징표로 삼는 톨스토이이다.
❸ 예술로서의 우열만 말한다. 작품 전체의 좋고 나쁨까지 말한 것이 아니다.
❹ 전염성과 내용을 따로 평가한다. 그래서 도덕적 내용만 있으면 된다는 ④도 맞지 않다.
❺ 두 기준을 나눈 표현이다. ④는 두 기준 중 내용만 남긴 선지이다.

정답 선지

⑤ 전염성이 강하다고 내용까지 좋은 예술인 것은 아니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톨스토이는 전염의 강도로 예술로서의 우열을 가리고, 내용의 좋고 나쁨은 종교적 인식에 비추어 따로 평가한다. 따라서 전염성이 강해도 내용까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제시문은 예술을 전염성과 내용으로 평가하며, 형식미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② 톨스토이는 쾌락이나 아름다움을 예술의 기준으로 삼는 입장을 비판한다.
③ 제시문은 전염의 강도가 예술가의 진실함에 달려 있다고 한다.
④ 전염성은 예술과 거짓 예술을 가르는 징표이므로 전염성이 없으면 참된 예술이 아니다.

키포인트

- 톨스토이는 전염성으로 예술 여부와 우열을 가리고, 종교적 인식으로 내용을 평가한다.
- 예술을 도덕과 분리하는 심미주의와, 전염성과 종교적 인식으로 평가하는 톨스토이를 구별한다.

11번 정답 ⑤

문제 원본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❶ 고른 것은? [3점]

> 갑 : 어떤 섬의 주민들이 모두 합의하여 시민 사회를 해체하고 흩어지기로 결의하더라도, 감옥에 남은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❷ 한다. 그래야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것을 받게 되고, 피의 죄책이 그 국민에게 남지 않는다.
> 을 : 모든 법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❸. 그러므로 공리의 원리에 따라 형벌은 더 큰 악을 막을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범죄의 해악이 클수록❹ 그것을 막기 위해 더 큰 형벌을 치를 만하다.

< 보 기 >

ㄱ. 갑 : 예방 효과가 없다면 살인자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
ㄴ. 갑 : 살인자에게 사형이 아닌 형벌을 내리는 것은 응보의 원리에 어긋난다.
ㄷ. 을 : 범죄를 막는 효과가 없는 형벌은 부과해서는 안 된다.
ㄹ. 갑과 을 : 형벌의 정도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❺해 정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❻

사고 메모

❶ 답지에 세 개짜리가 있다. ㄱ~ㄹ을 빠짐없이 판단한다.

❷ 사회가 사라져 예방 효과가 없어도 처벌한다. 응보가 근거임을 보여 주므로 ㄱ이 막힌다.

❸ 형벌을 예방으로만 정당화하는 벤담이다. 효과가 없으면 부과할 수 없으므로 ㄷ으로 이어진다.

❹ 벤담도 범죄의 크기를 형벌에 반영한다. 근거가 예방일 뿐이므로 ㄹ의 판단 근거가 된다.

❺ 근거는 달라도 결론은 같을 수 있다. 칸트는 응보로, 벤담은 예방의 비용으로 경중을 따진다.

❻ ㄱ이 틀리면 ②, ③, ⑤가 남는다. 공통점을 묻는 ㄹ까지 판단해야 답이 정해진다.

정답 선지

⑤ ㄴ, ㄷ, ㄹ

정답 근거

ㄴ. (O) 칸트는 살인에 상응하는 형벌은 사형뿐이라고 보았다. 다른 형벌은 응보의 원리에 어긋난다.
ㄷ. (O) 벤담은 해악을 막지 못하는 형벌은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ㄹ. (O) 칸트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요구한다. 벤담도 범죄의 해악이 클수록 더 큰 형벌을 치를 만하다고 한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옳다.

나머지 선지 근거

ㄱ. (X) 칸트는 시민 사회가 해체되어 예방 효과가 없어도 살인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ㄱ을 고른 ①, ④는 답이 아니고, ②, ③은 옳은 진술 하나를 빠뜨렸다.

키포인트

- 칸트는 응보를 형벌의 근거로 삼고, 벤담은 더 큰 악의 예방을 형벌의 근거로 삼는다.
- 근거가 달라도 두 사상가 모두 범죄의 경중을 형벌에 반영한다. 공통점을 묻는 선지는 근거와 결론을 나누어 판단한다.

홀수형

12번 정답 ④

문제 원본

12. 다음 사상의 입장❶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 살아 있는 모든 존재❷를 향해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❸. 약하든 강하든,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어디서든 누구도 속이거나 얕보지 말고, 성냄이나 증오로 남의 고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 보 기 >

ㄱ. 자비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열반에 이른 뒤에야❹ 실천할 수 있다.
ㄴ.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 자비의 바탕이다.
ㄷ. 자비는 불변하는 자아❺가 타자를 향해 베푸는 덕이다.
ㄹ. 성냄을 다스리는 수행은 자비의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❻
⑤ ㄷ, ㄹ

사고 메모

❶ 제시문은 자비경이다. <보기>는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근거와 실천 시점을 묻는다.

❷ 차별 없는 자비이다. 대상이 모든 중생이라는 점은 ㄴ의 고통 공감으로 이어진다.

❸ 자비는 지금 닦는 수행이다. 깨달음 뒤로 미루는 ㄱ을 막는다.

❹ 그럴듯하지만 순서가 틀렸다. 자비는 결과이면서 수행 자체이다.

❺ 무아와 충돌한다. 베푸는 주체를 실체로 세우면 불교가 아니다.

❻ ㄴ은 동체대비이고, ㄹ은 성냄을 다스리는 수행과 자비를 잇는다.

정답 선지

④ ㄴ, ㄹ

정답 근거

ㄴ. (O) 불교의 동체대비이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면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게 되며, 이 마음이 자비의 바탕이 된다.
ㄹ. (O) 제시문은 성냄이나 증오로 남의 고통을 바라지 말라고 한다. 성냄을 다스리는 수행은 자비의 실천과 이어진다.
따라서 ㄴ, ㄹ이 옳다.

나머지 선지 근거

ㄱ. (X) 제시문은 자비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한다. 자비는 열반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열반에 이르는 수행이기도 하다.
ㄷ. (X) 불교는 불변의 실체로서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이나 ㄷ을 고른 ①, ②, ③, ⑤는 답이 아니다.

키포인트

- 불교의 자비는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하며, 연기와 동체대비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다.
- 자비는 깨달음의 결과인 동시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다. 불교의 무아를 함께 기억한다.

13번 정답 ③

문제 원본

13. 다음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❶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모두를 두렵게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동안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입니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이 없고,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없습니다❷.
> 을 : 자연 상태에도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이성이 곧 그 법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신체의 노동을 자연물에 섞음으로써❸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듭니다.

< 보 기 >

ㄱ. 갑 : 주권자도 사회 계약의 당사자로서❹ 계약에 구속된다.
ㄴ. 갑 :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ㄷ. 을 : 소유권은 타인의 동의 없이 노동으로 성립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❺ 인민에게 남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❻
④ ㄴ, ㄹ
⑤ ㄷ, ㄹ

사고 메모

❶ 자연 상태만 묻지 않는다. 계약의 구조와 주권의 소재까지 판단해야 한다.

❷ 전쟁 상태의 홉스이다. 정의가 없으므로 자연권은 제한 없이 모든 것에 미친다. ㄴ으로 이어진다.

❸ 로크의 노동 소유권이다. 소유는 계약 이전에 성립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 ㄷ으로 이어진다.

❹ 주권자가 계약을 맺는 쪽인지 따진다. 홉스의 계약은 신민들 사이의 계약이다.

❺ 루소의 주권론이다. 공통 입장을 묻는 선지는 한 사람만 어긋나도 틀린다.

❻ ㄱ은 계약 구조, ㄹ은 주권론으로 지운다. 제시문을 벗어난 교과 지식이 필요하다.

정답 선지

③ ㄴ, ㄷ

정답 근거

ㄴ. (O)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ㄷ. (O) 로크는 자기 노동을 자연물에 섞으면 타인의 동의 없이도 소유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ㄴ, ㄷ이 옳다.

나머지 선지 근거

ㄱ. (X) 홉스에게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신민들이 서로 계약해 주권자를 세우므로 주권자는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ㄹ. (X) 주권의 불가양은 루소의 입장이다. 홉스는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한다고 보고, 로크도 최고 권력이 인민에게 남는다고 할 뿐 주권 불가양을 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ㄱ이나 ㄹ을 고른 ①, ②, ④, ⑤는 답이 아니다.

키포인트

- 홉스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고, 로크의 자연 상태에는 자연법이 있다.
- 홉스의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주권의 불가양은 루소의 입장이다.

홀수형

14번 정답 ①

문제 원본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❶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일정한 생업[恒産]❷이 없어도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변함없는 마음도 없어진다.
> ○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❸.

① 인의를 해친 군주는 백성을 위해 교체될 수 있다❹.
② 백성의 도덕성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③ 임금의 권위는 백성의 뜻보다 앞서야 한다.
④ 선비도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변함없는 마음을 지닐 수 없다.
⑤ 왕도 정치는 엄한 형벌로 백성을 바로잡는 정치이다.

사고 메모

❶ 두 구절을 따로 읽지 않는다. 경제적 안정과 민본이 함께 왕도 정치로 이어진다.

❷ 백성에게 도덕을 요구하려면 먼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②를 막는다.

❸ 임금의 권위는 백성보다 앞서지 않는다. ③을 막고 역성혁명으로 이어진다.

❹ 제시문에 직접 없는 내용이다. 민본에서 역성혁명으로 나아가는 교과 지식으로 판단한다.

정답 선지

① 인의를 해친 군주는 백성을 위해 교체될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맹자는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인의를 해친 군주는 군주의 자격을 잃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교체될 수 있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② 제시문은 백성이 생업이 없으면 변함없는 마음도 없어진다고 한다.
③ 제시문은 백성이 가장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고 한다.
④ 제시문은 선비만이 생업 없이도 변함없는 마음을 지닌다고 한다.
⑤ 맹자의 왕도 정치는 형벌이 아니라 인의에 근거한다.

키포인트

- 맹자는 항산과 항심의 관계를 들어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한다.
- 민본 사상은 인의를 해친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으로 이어진다.

15번 정답 ②

문제 원본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단계에서 개인이 분업에 예속되는 일이 사라지고 노동이 삶의 제일가는 욕구가 되면, 사회는 깃발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❷!
> 을 : 내 노동의 결실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나를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❸. 국가가 그 몫을 가져가 남에게 주면 그들은 나의 일부를 소유하는 셈이 된다.

① 갑 : 공산주의 첫 단계부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된다.
② 갑 : 노동량에 따른 분배❹는 이상적 분배 방식이 될 수 없다.
③ 을 :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어도 결과가 불평등하면 부정의하다.
④ 을 :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재분배는 정당하다.
⑤ 갑과 을 : 국가의 강제적 재분배는 정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사고 메모

❶ 분배의 단계와 재분배의 정당성을 나누어 본다. 을 쪽에는 롤스의 입장이 섞여 있다.

❷ 높은 단계의 원칙이다. 첫 단계는 노동에 따른 분배이므로 ①이 틀린다.

❸ 재분배를 위한 과세를 거부한다.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④는 롤스이다.

❹ 첫 단계의 원칙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따진다. 높은 단계의 기준은 필요이다.

정답 선지

② 갑 : 노동량에 따른 분배는 이상적 분배 방식이 될 수 없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마르크스는 높은 단계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노동량에 따른 분배는 이 단계에 이르기 전의 방식이므로 이상적 분배 방식이 될 수 없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첫 단계는 노동에 따른 분배이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③ 노직은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의롭다고 본다.
④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다. 노직은 이러한 재분배를 반대한다.
⑤ 노직은 강제적 재분배에 반대한다.

키포인트

-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노직은 소유 권리의 보호를 주장한다.
- 노직의 소유 권리론과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혼동하지 않는다.

홀수형

16번 정답 ③

문제 원본

16.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칼럼] 생각을 멈춘 자리에 남는 것
> 나치 전범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철학자는 그에게서 괴물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평범한 사람❷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 지능이 내놓은 결론을 별다른 검토 없이 따르곤 한다.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알고리즘의 결과일 뿐❸이라고 답하는 담당자의 말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과 닮아 있다. 기술은 판단을 도울 수 있지만❹,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일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악은 사악한 의도에서뿐 아니라 생각하지 않음에서도 자라난다.

① 인공 지능을 쓰면 판단의 책임은 기술로 옮겨 갈 수 있다.
② 악은 특별히 사악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난다.
③ 판단을 기술에 맡기고 사유를 멈추는 것은❺ 악을 키울 수 있다.
④ 알고리즘을 따른 담당자는 명령을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
⑤ 인공 지능의 활용을 중단해야만 악을 막을 수 있다.

사고 메모

❶ 사례가 아니라 글쓴이의 주장을 찾는다. 인공 지능을 금지하자는 글이 아니다.

❷ 악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②를 막는다.

❸ 명령에 따랐다는 말과 같은 구조이다. 글쓴이는 이 태도를 비판하므로 ④가 틀린다.

❹ 기술 자체는 인정한다. 활용을 중단하자는 ⑤를 막는다.

❺ 문제의 초점을 기술이 아니라 사유의 중단에 둔다. 글 전체의 결론이다.

정답 선지

③ 판단을 기술에 맡기고 사유를 멈추는 것은 악을 키울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칼럼은 인공 지능의 결론을 검토 없이 따르는 담당자의 말을 아이히만의 말에 견주고, 악이 생각하지 않음에서도 자라난다고 결론짓는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칼럼은 책임지는 일을 기술이 대신할 수 없다고 한다.
② 칼럼은 평범한 사람에게서도 악이 자랄 수 있다고 본다.
④ 칼럼은 담당자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한다.
⑤ 칼럼은 기술이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인정한다.

키포인트

- 기술을 쓰더라도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책임지는 일은 인간의 몫이다.
-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생각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킨다.

17번 정답 ⑤

문제 원본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인간의 좋음은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되는 것은 아니듯❷, 하루나 짧은 기간의 활동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 을 : 어떤 상인이 경험 없는 손님에게도 같은 값을 받는 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로부터가 아니라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① 갑 : 품성의 탁월성은 교육을 통한 앎만으로 갖추어진다.
② 갑 : 행복은 명예나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③ 을 :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의도가 아닌 결과에 달려 있다.
④ 을 :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⑤ 갑과 을 : 같은 행위라도 내면에 따라❹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사고 메모

❶ 덕 윤리와 의무론의 차이뿐 아니라 공통점까지 묻는다. ⑤를 끝까지 판단한다.

❷ 행복은 일시적 쾌락이나 명예가 아니라 일생에 걸친 탁월성의 활동이다.

❸ 겉으로는 의무에 맞아도 동기가 다르면 가치가 없다. ④를 막는다.

❹ 칸트는 의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앎, 선택, 확고한 품성을 본다. 근거는 달라도 결론이 같다.

정답 선지

⑤ 갑과 을 : 같은 행위라도 내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덕한 행위가 앎과 선택, 확고한 품성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같은 행위도 의무로부터 나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품성의 탁월성은 앎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
② 행복은 그 자체로 추구되는 최고선이다.
③ 칸트는 결과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본다.
④ 상인의 사례처럼 의무에 맞아도 도덕적 가치가 없을 수 있다.

키포인트

-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과 습관을, 칸트는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선의지를 중시한다.
-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의 행위를 구별한다.

홀수형

18번 정답 ①

문제 원본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❶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영구 평화로 나아가려면 먼저 다음이 지켜져야 한다. 장래 전쟁의 구실을 몰래 남겨 둔 평화 조약은 평화 조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한낱 휴전일 뿐 평화가 아니다. 상비군❷은 언제나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여 다른 나라를 위협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❸.

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한정❹되어야 한다.
②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를 하나의 세계 국가로 통합해야 한다.
③ 국가의 통치 형태는 평화의 실현과 무관하다.
④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은 구성국을 강제할 공권력을 지녀야 한다.
⑤ 부정의한 국가의 체제는 다른 국가가 무력으로 바꿀 수 있다.

사고 메모

❶ 제시문은 예비 조항이다. 선지는 확정 조항까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

❷ 영구 평화의 예비 조항이다. 칸트임을 확정하는 단서이다.

❸ 내정 불간섭이다. 무력으로 체제를 바꾼다는 ⑤를 막는다.

❹ 세계 시민법의 범위이다. 체류권이 아니라 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까지이다.

정답 선지

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정답 근거

정답이다. 칸트는 영구 평화의 확정 조항에서 세계 시민법을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한정했다. 우호는 낯선 땅에서 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이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② 칸트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세계 국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이다.

③ 칸트는 공화정을 영구 평화의 첫째 확정 조항으로 삼는다.

④ 칸트의 연맹은 국가들의 자유를 보전하며 구성국을 강제하는 공권력을 갖지 않는다.

⑤ 제시문은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키포인트

- 칸트의 확정 조항은 공화정,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보편적 우호에 한정된 세계 시민법이다.
- 칸트의 연맹은 세계 국가가 아니며, 우호의 권리는 영속적 체류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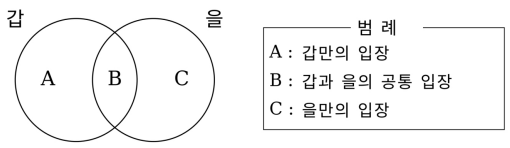
19번 정답 ⑤

문제 원본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❶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제도❷를 스스로 운영하게 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 문화이다.
을 :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집 아이인지 얼굴도 모르는 먼 나라의 아이인지는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❸. 기근 구호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선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❹이다.

(나)



< 보 기 >

ㄱ. A : 사회 간 부의 격차❺를 줄이는 것 자체가 원조의 목표이다.
ㄴ. B : 적정한 제도를 갖춘 사회는 빈곤하더라도 원조 대상이 아니다❻.
ㄷ. B :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의무이다.
ㄹ. C : 원조의 궁극적 대상은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❼

사고 메모

❶ 내용과 칸을 따로 본다. A는 을이 거부해야 하고, C는 갑이 거부해야 한다.

❷ 원조의 목표가 제도이다. 빈곤이 남아 있어도 원조가 끝날 수 있으므로 ㄴ의 내용은 갑의 입장이다.
❸ 거리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싱어의 대상이 사회가 아니라 고통받는 개인임을 보여 준다.
❹ 을의 입장이다. 롤스도 고통받는 사회의 원조를 의무로 본다는 교과 지식과 이어야 B 칸이 판단된다.

❺ 롤스는 사회 간 부의 수준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 내용이 틀린 진술이다.
❻ 내용은 갑의 입장이지만 을은 빈곤한 개인을 도우려 한다. A의 진술이므로 B가 아니다.

❼ ㄴ을 내용만 보고 고르면 틀린다. 칸까지 확인해야 ①, ③, ④가 지워진다.

정답 선지

⑤ ㄷ, ㄹ

정답 근거

ㄷ. (O)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것을, 싱어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의무로 본다. 두 사람의 공통 입장이므로 B의 진술이다.
ㄹ. (O) 싱어는 고통받는 개인을 원조의 대상으로 본다. 롤스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이므로 C의 진술이다.
따라서 ㄷ, ㄹ이 옳다.

나머지 선지 근거

ㄱ. (X) 롤스는 사회 간 부의 격차 해소를 원조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ㄴ. (X) 갑의 입장이다. 을은 사회의 제도와 무관하게 빈곤한 개인을 도와야 한다고 보므로 A의 진술이다.
따라서 ㄱ이나 ㄴ을 고른 ①, ②, ③, ④는 답이 아니다.

키포인트

- 롤스와 싱어는 모두 원조를 의무로 보지만 대상과 목표가 다르다.
- 롤스의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제도를, 싱어의 원조는 개인의 고통 감소를 겨냥한다.

홀수형

20번 정답 ②

문제 원본

20.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❶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에서 진정한 인간적 삶이 지속되는 것❷과 양립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인류의 존재가 걸린 문제에서는 좋은 예측보다 나쁜 예측에 더 귀를 기울여야❸ 한다. 인류의 존속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도박의 판돈으로 걸 수 없다.
>
> <문제 상황>
>
> A는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 성층권에 입자를 뿌려 햇빛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수십 년 뒤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❹. A는 이 기술을 실제 대기에서 바로 시험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현세대 모두가 동의하면 미래 세대의 위험은 문제 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② 나쁜 결과의 가능성이 낮아도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라면❺ 실행을 미루세요.
③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한 뒤 실제 시험을 진행하세요.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음을 명심하세요.
⑤ 기대되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면 실제 시험을 진행하세요.

사고 메모

❶ 상황에 대입하기 전에 요나스가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정한다.

❷ 요나스의 새로운 정언 명령이다. 책임의 대상이 현세대를 넘어선다. ①을 막는다.

❸ 불확실할수록 신중해야 한다. 이익이 크면 진행하라는 ⑤와 정면으로 갈린다.

❹ 불확실성이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이 조건이 ④를 막고 요나스를 적용할 자리를 만든다.

❺ 사후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③과 갈리는 지점이다.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은 보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정답 선지

② 나쁜 결과의 가능성이 낮아도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라면 실행을 미루세요.

정답 근거

정답이다. 요나스는 인류의 존재가 걸린 문제에서 나쁜 예측을 앞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가능성이 낮아도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라면 이익이 크더라도 실행을 미루어야 한다.

나머지 선지 근거

① 요나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 책임의 대상으로 본다.
③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은 사후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실행 전에 막아야 한다.
④ 요나스는 결과가 불확실해도 예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⑤ 요나스는 인류의 존속이 걸린 문제를 이익과 위험의 비교로 판단하지 않는다.

키포인트

-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현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
- 불확실한 기술에는 나쁜 예측을 앞세운다. 이는 기술 자체의 포기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막는 신중한 통제를 뜻한다.